

남양건설 '영산강 사업' 포기

2000억대 공사 '반값 수주'에 유동성 위기까지 겹쳐 승계권 가진 동부건설 '머뭇'...사업권 누가 될까 관심

법정관리를 신청한 남양건설이 2천억원대의 초대형 사업인 영산강 하구둑 2공구 사업을 포기했다.

19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최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남양건설이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사업 2공구 실시설계 대표사 지위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16일 농어촌공사에 보내왔다.

'반값 수주'에 유동성 위기까지 겹친 남양건설이 2천억원대의 영산강 하구둑 사업을 포기하면서 사업권을

누가 될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1차 선택권은 남양과 컨소시엄을 구성, 30%의 지분을 갖고 있는 동부건설에게 있다고 밝혔다. 대표사인 남양이 그 지위를 포기하면 2인자인 동부건설이 시공권을 승계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2천522억원대 사업을 남양이 반값 수준인 1천322억원에 덤핑 수준인 것이어서, 적자 시공을 감수하더라도 시공권을 이어받으려 주목된다. 동부건설은 원가를 분석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남양에 이어 동부건설마저 중도하차하면 농어촌공사는 재입찰을 하거나 차순위 업체인 한양에게 사업권을 넘겨줄 것으로 관측된다.

재입찰로 결정되면 일할 공고 등 절차를 다시 밟아야 돼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럴 경우 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는 4대강 사업의 차질이 예상된다.

4대강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 차순위 업체에 시공권을 넘겨주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한양이 실시설계 입찰에서 제시한 공사금액이 1천532억원으로 남양이 낙찰받은 가격보다 500억원이나 높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남양건설이 대표사 포기 공문을 보내온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승계권을 가진 동부건설이 아직까지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여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동부마저 중도하차한다면 이달 말로 예정된 정식계약 일정의 차질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기아차 '쏘울' 렌터카 체험 기아자동차는 대한항공과 제휴해 19일부터 한 달간 대한항공 제주도 왕복 항공권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제주도에서 쏘울 렌터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체험 이벤트를 실시한다. 다음달 19일부터 연말까지는 제주도 여행 고객들에게 쏘울 렌터카를 25~40% 할인된 가격에 제공한다. (기아차 제공)

금호타이어 워크아웃 재개

노사 재협상 타결...채권단 신규 자금지원 등 정상화 논의

금호타이어 노사 재협상이 최근 다시 타결되면서 그동안 중단됐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도 재개됐다.

채권단은 노조가 21일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거쳐 구조조정 동의서를 제출하는 대로 금호타이어에 신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채권단은 금호타이어에 1천억 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과 3천만 달러 한도의 신용장(L/C) 신규 개설 등을 지원해주기

로 한 바 있다.

채권단은 또 이르면 이번 주말까지 경영정상화 계획을 마련해 주주별 차등감자와 출자전환 등을 실시키로 했다.

채권단은 일단 20~21일께 주요 채권금융회사들을 불러 금호타이어 경영정상화 및 정상화 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거쳐 이달 말까지 채권금융회사들을 상대

로 서면 동의서를 받을 계획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금호타이어의 채권행사 유예기간이 내달 5일까지여서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번 주까지 정상화계획을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의 정상화 계획은 채권 신고액 기준으로 전체의 75%가 동의하면 확정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韓銀 통화정책 경시대회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본부장 전승희)는 오는 7월21일~23일까지 '2010 한국은행 통화정책 지역 경시대회'를 개최한다.

참가대상은 광주, 전남, 북지역 소재 4년제 대학 재학생 또는 휴학생이며, 동월 대학 내 4명을 1팀으로 구성해 신청해야 한다. 다음달 3일부터 한국은행 경제교육 홈페이지(economy.bokeducation.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역대회 최우수상 수상팀은 오는 8월20일 한국은행 본부(서울)에서 열리는 전국대회 참가자격이 주어진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 무역수지 12억달러 흑자

전남은 11개월 연속 적자

광주·전남지역의 1·4분기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무역수지는 광주가 흑자, 전남이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11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냈다.

19일 광주본부세관이 발표한 '2010년 1분기 수출입 및 무역수지 동향'에 따르면 광주지역의 1·4분기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47.6% 증가한 23억2천800만달러, 수입은 70.8% 증가한 11억4천300만달러로 무역수지는 11억8천5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 품목별로는 가전제품(65.9%), 반도체(51.3%), 수송장비(31.9%)를 비롯해 가죽·고무 및 신발류(43.7%), 기계류와 정밀기기(43.1%) 등이 크게 증가했다.

전남의 1·4분기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48.6% 증가한 69억6천600만달러, 수입은 39.0% 증가한 79억7천만달러를 기록해 무역수지 10억4천만달러 적자를 냈다. 전남은 지난해 5월 113억 흑자 이후 11개월째 적자행진을 이었다.

품목별로는 기계류와 정밀기기(-40.8%), 수송장비(선박)(-4.5%) 등은 감소했으나, 석유제품(116.8%), 철강제품(61.9%), 화공품(45.6%) 등이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수출이 증가했다.

그러나 원유(79.5%), 화공품(74.7%) 등의 수입이 전년 대비 39.0% 증가해 무역수지 적자 요인이 됐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LED 등 산단 클러스터 올부터 경쟁 체제 도입

LED·광통신·금형 등 광주지역 6개 미니클러스터 등 전국 산업단지 클러스터에 경쟁체제가 도입된다.

지식경제부는 19일 정부 주도로 성립해온 산업단지 클러스터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퇴출·졸업제도를 도입하는 등 '산업단지 클러스터 자생력 강화 시스템'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13개 클러스터 중 초기인 2005년부터 지원받은 광주를 비롯해 반월시화, 군산 등 7개 클러스터 추진단에 졸업제도가 적용된다.

또 전국 81개 미니클러스터(MC) 가운데 정부지원 1~2년차를 제외한 모든 MC를 대상으로 성과 평가를 매년 실시해 활동이 미흡한 MC를 광역별로 1곳씩 5개 MC를 선정, 퇴출할 계획이다. /박정욱기자 jwpark@

키워드 경제 미시·거시경제는 '나무와 숲'

미시·거시 경제는 나무와 숲에 비유되곤 한다. 숲을 보는 것이 거시(巨視)경제라면, 나무를 주목하는 것이 미시(微視)경제라는 얘기가 된다.

경제현상에서 미시적인 시각이 적용되는 사례는 흔히 음식값, 물가, 버스 요금, 기업의 매출, 가게 소비, 저축 등 주로 개개의 경제현상이다. 거시경제는 국제수지, 실업

률, 환율, 통화량, 이자율 등 경제를 큰 시각으로 조망한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미시경제정책은 자원의 배분과 소득 및 부의 분배를 대상으로 한다.

거시 경제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는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논란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9일 기준금리를 연2.00%로 동결했다. 무

려 14개월째 이어진 저금리 기조다. 기준금리는 은행권 예금·대출 금리를 결정하는 중요 변수다. 금리 인하는 은행권의 대출이자율 끌어내리는 효과를 발휘해 기업과 가계의 대출이 자연스럽게 늘게 된다. 한국은행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기업투자를 유도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저금리 정책을 쓰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자료제공=(사)광주경제·문화공동체

그러나 장기 저금리 정책을 유지함으로써 시중에 너무 돈이 풀려 물가가 치솟는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는 시각도 있다. '출구전략'(금리인상 등을 통해 시중자금을 흡수하는 조치들)시행 시기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런 간단치 않은 배경 때문에 국가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거시 경제정책의 변환 여부는 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농협 전남본부 문화마케팅

농민 등 고객 뮤지컬 초대

농협 전남본부가 농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향유 기회를 주기 위해 무료 공연사업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부는 지난 17일 농민과 고객 2천여명을 초대해 목포시 민문화센터에서 뮤지컬 '멋진 인생'을 무대에 올린 데 이어 다음달 12~13일 해남문화회관에서 청소년과 농

협 고객 2천여명을 초청,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전남지역본부부는 이번 공연을 위해 사업비 6천만원을 농협중앙회로부터 지원받아 한국청소년 공연예술진흥회를 공연 단체로 선정했다.

김용복 농협 전남지역본부장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예술 인프라가 취약한 농촌 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문화사업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

코스피지수	1,705.30 (-29.19)
코스닥지수	502.70 (-5.72)
금리 (국고채 3년)	3.78% (-0.02)
원·달러 환율	1,118.30원 (+7.80)

※수치는 전일 종가기준

세계보청기
세기의 무대는 세계민너태

세계기스타·세계보청기

1399-8499-188-322-9108